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20일 (음력 1월 16일) 수요일

## 장성군 ·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개발 첫 단추



장성군(군수 유두석)과 고려시멘트(대표이사 이극노)가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모델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수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공장 부지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공장 부지 개발을 위해서 공동의 힘을 쏟기로 합의했다. 19일 장성군과 고려시멘트는 군청 상황실에서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모델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수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공장 부지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오전 열린 협약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공무원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고려시멘트 이극노 대표이사외 재

### 양측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 구상MOU 주변지역 "모처럼 희소식, 개발 기대감 높아"

무, 관리 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향후 추진될 타당성 조사에 드는 용역비 2억 원을 각각 1억 원씩 부담한다. 또 개발 모델 구상과 용역 감독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모델 개발은 기존 고려시멘트 공장 건축물과 부지 32만㎡, 경도, 채굴장까지 포함해 이뤄진다. 장성군은 활용 가능한 부지 면적이 크고 공장, 경도 등의 독특한 형태의 산업지역의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만큼 모델 개발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 유형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단지 같은 주거형이나 워라밸시설과 관광, 숙박 시설로 구성된 관광 체류형, 대규모 아울렛 등 유통 상업 단지와 기존 시설을 전시장이나 박물관 등으로 바꾸는 리노베이션 등 폭넓게 다뤄진다.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구상이 본격화되자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우선 장성군의 성장과도 같은 고려시멘트 공장 일대에 새로운 사실이 들어서면 장성의 이미지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걱정을 안겨준 환경 문제도 해결되면서 걱정 해소 및 주거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군수는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이 장성의 지도를 바꿀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이 일대가 주거형으로 개발된다면 수천 가구의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두석 군수는 이어 "관광·유통·상업시설 등이 배곡히 들어설 경우 상당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려시멘트가 장성의 미래를 생각하는 해인이 있어 이 자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두석 군수는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공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성군과 고려시멘트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개발 모델 구상을 위한 기초 작업을 다졌다.

### Photo 漫評

오관

5·18 망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 시민들이 김 의원 추방 운동에 들어갔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역사문화연구원, 춘천경찰서 등 52개 단체는 18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춘천 망인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어 김 의원은 망인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며 춘천시민들을 함몰이 수차례 있게 만들었다.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만 혈안이 돼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과오를 반복했다. 김 의원을 더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범시민운동본부는 김 의원에게 국민과 광주시민에 대한 사죄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스1



이용규 기자

서은홍 기자

## 광주시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847명 선발...역대 최다 규모

광주시는 20일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847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3명(82.5%) 늘어난 수치이며 광주시 개칭 이후 최대 규모다. 신규 공개채용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광주형 일자리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착공에 따른 인력수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 신규 행정수요가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518명, 기술직군 329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25명, 연구사 17명, 8급 50명, 9급 75명 등이다. 직렬·직급별 채용인원은 ▲행정 327명(일반 291, 장애인 20, 저소득층 15, 북한

이탈주민 1) ▲사회복지 136명(일반 118명, 장애인 10명, 저소득층 8명) ▲세무 33명 ▲전산 11명 ▲사서 9명 ▲방호 1명 ▲공업 51명 ▲농업 9명 ▲녹지 9명 ▲보건 생 1명 ▲운전 6명 ▲연구직 17명 ▲고졸 구분 10명 등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장애인 30명, 저소득층 34명을 구분 선발한다. 또 공역9급 4명(기계 2, 전기 2), 시책9급 6명(토목3, 건축3) 등 2개 직렬 10명을

특성하고·미스터고 등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구분 선발한다. 제1회 임용시험은 8·9급 795명을 선발하며 4월8일부터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9월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7급·연구사 등 52명을 선발하는 제2회 임용시험은 8월5일부터 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이정식 광주시 혁신정책관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들이 많이 응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부터는 현행 행정직 중심의 7급 공채시험을 기술직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